김종식 목포시장, 국비 확보·현안해결 총력

박지원 국회의원·기재부 2차관 만나 예산 지원 요청
박양우 문체부장관 면담 서남권 관광 육성 관심 당부

목포시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2020년도 정부 예산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김종식 시장은 지난 22일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41억원)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15억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66억7천만원) ▲대반동 친수공간 조성(10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고용·산업 위기지역인 목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종합수산시장 주차장 증축 및 건조장 건립(16억원) ▲중앙식료시장 노후 아케이트 교체공사(20억원)에 대한 예산을 연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만나 관광정책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목포시와 서남권 관광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목포시는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력해 도시재생, 수산식품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목포가 비교 우위를 갖는 강점을 부각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 대응하면서 국회의결 시까지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목포 국제카페리부두 확충, 신항 크루즈부두 건설, 삼학도 항만 친수시설 조성,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등 목포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지난 4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오운열 항만국장을 면담하고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수시) 및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반영 건의사업(12건 9천123억원)을 설명하며 "서남권 물류 거점이자 무역항인 목포신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 확충이 시급하므로 목포시가 신청한 사업들을 모두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전국 항만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항만 관련 국가 기본계획으로 2020년 수립·고시되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개발 계획들이 담겨진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최근 박지원 국회의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목포시 제공

김종식 시장은 "목포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서 환서해권 경제벨트의 출발점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번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책·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며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나주경찰, 가상음주 체험

나주경찰서는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윤창호법'을 앞두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고글을 활용한 범시민 가상음주 '어질어질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나주경찰서는 범시민 음주운전 근절 붐 조성과 분위기 동참을 위해 음주고글 5개를 자체 구입했다.

소속 본서 및 지역관서의 경찰관들은 이달 초부터 음주고글을 착용, 릴레이식 가상음주체험을 실시한 후 소감을 댓글로 표현하도록 해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자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신은 물론, 가족·친지·동료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주=정종환 기자

대나무축제 단체 장학금 기탁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 제21회 대나무축제가 성황리에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축제에 참여했던 단체들로부터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생활개선담양군연합회(회장 문순임)와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부회장 추인순)는 지난 21일 대나무축제 기간 중 부스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각 100만원을 미래천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한국생활개선담양군연합회는 12개 읍·면 296명의 여성농업인들로 구성된 학습단체로 대나무축제 기간 관광객들에게 수제 딸기주스·딸기잼·딸기와플 등을 판매하는 담양딸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는 8개 여성단체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매년 대나무축제에서 노천카페를 운영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전동평 영암군수가 최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서울 상생발전 좌담회'에 참석해 지방-서울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암군 제공

전동평 영암군수 "지역·서울 협력, 상생시대 열자"

전국 지자체장 등 100여명 참석 좌담회서 제안
상호교류 구축 등 3대 분야 36개 사업 로드맵

전동평 영암군수가 최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서울 상생발전 좌담회'에 참석해 지방정부간 지방자치의 혁신 동반자로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좌담회는 지역과 서울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자유로운 담론을 교환하고 지역상생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자리로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 지자체장 28명, 서울 구청장, 전문가, 언론인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전동평 군수를 비롯한 지자체장과 박원순 서울시장간 지역상생 협약식을 통해 서울과 지역간 교류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사업간 연계성과 유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인적교류(지역정착 활동지원) ▲서울시민 지역활동지원 ▲지역주민 서울활동지원 ▲상호교류 활동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정보교류(혁신 기술제도 공유) ▲서울-지방간 혁신로드 ▲맞춤형 우호교류 협약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운영, 물자교류(자원의 유기적 연계) ▲직거래 장터운영 ▲자원연계 복합거점 운영 ▲지역상생 판로시스템 등으로 3대 분야 36개 세부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협약식에 이어 지역-서울 상생발전 좌담회를 통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동반자의 길을 걷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공동발전 정책을 이끄는 중요한 기조로 삼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생상회' 전국 지자체 농·특산물 홍보관에서 영암의 우수 농·특산물인 달마지쌀골드, 대봉감, 무화과쨈, 황토고구마, 참기름 등을 홍보·판매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영암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됐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선도하는 핵심 프로젝트인 미암-서울농장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암-서울간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 기자

영광군, 정부차원 한빛원전 안정화 대책 촉구

영광군은 23일 "최근 한빛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열출력 급증 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범정부 차원의 한빛원전 안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사건을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운영 능력을 재고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규정하며 아직도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해 왔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광군은 "다수의 기관과 단체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연일 언론매체에서 원전 사고의 위험성까지 보도해 지역민들이 삶의 터전을 염려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어 주민보호의 책임기관인 지자체로써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한빛원전 운영 안정화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한수원은 군민에게 사죄와 함께 영광군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고, 두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를 원자력발전소 운영 전반으로 확대 할 것과 규제체계 전면검토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한수원 감독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영광군은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최대 60% 할인…여수 '흥국상가 세일 페스타'

내일 낮 12시-오후 8시 의류, 액세서리 등 할인 판매

25일 여수시 시전동 흥국상가에 가면 다채로운 거리 공연을 즐기며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여수시는 23일 "25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흥국상가 거리 일원에서 청년상인 어울림 프로젝트 '흥국상가 세일 페스타'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동화마켓, 재즈공연, 게릴라 마술쇼, 경품 이벤트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다.

먼저 세일페스타 구역에서는 흥국상가 50여개 상점이 의류, 액세서리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동화마켓은 프리마켓 형식으로 지역 청년이 제작한 수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을 방문객에게 선보인다.

공연존에서는 7개 음악팀이 재즈, 블루스 공연을 펼치며 낭만을 선사한다.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진행되는 게릴라 마술쇼와 아동마술쇼는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한다.

흥국상가 청년사업단 대표 백현공씨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흥국상가 가족들이 힘을 합쳐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 한마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20층, 77평, 최상층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전망 좋음**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즉시입주가
- **보3천만원에 월110만원에 임대가능**
- **건설회사, 보험회사등 사무실 적합**
- **시세/감정가 - 4억**
  급매 - 3억30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